

News

금융사 규제 풀어 자금 공급 여력 최대 400兆 늘린다

한국경제

금융당국, 은행의 현금(고유동성자산) 보유량을 정하는 통합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을 9월까지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춰...
은행 예대율도 100%에서 내년 6월까지 105%로 늘려 예금으로 받은 돈보다 대출금 규모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

코로나 대응하느라 나빠진 국책은행 건전성...평가때 봐준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할 수 있는 ROE, 이익 목표 달성도 등 수익성 지표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BIS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정부 정책 이행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 신설...업무증가로 발생하는 직원 초과근무 수당 등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방침도 조정하기로

은행 주택대출금리 2% 초중반대...역대 최저

연합뉴스

신규 코픽스가 최근 넉달간 하락함에 따라 일부 은행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 밑으로 내려가며 변동·고정금리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기도...
변동금리만큼은 아니지만 고정금리도 '낮은 포복' 움직임...고정금리형 주택대출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

'코로나19' 지원 강화...기업은행, 4000억 자본확충 결정

머니투데이

기업은행, 17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제3차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증자규모는 4,125억원...1주당 발행 금액은 7,171원으로 총 5,752만주 발행
유상증자 목적에 대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본확충"...지나달 유상증자와 신증자본증권 발행을 동시에 진행해 총 6,600억원의 자본 확충

생명보험사 보유계약고 2016년 이후 최저 기록

뉴스토마토

지난 1월 기준 생보사의 보유계약은 2,444조4,21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469조9,641억원) 대비 25조5,427억원(1.03%) 줄어...2016년 6월 이후 최저
코로나19 타격이 지표로 나타나는 올해 2분기부터는 감소 폭이 더욱 확대할 것이라 지적...

영 보험업계, 코로나19 대비 최종 배당 유보

한국보험신문

영국 보험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험환경과 대내외 경기 불투명성을 고려해 2019년 배당과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유보...
이는 영국 중앙은행(BOE) 산하 건전성감독청(PRA)의 권고에 따른 것...이에 아비바, RSA, 히스콕스 등 영국의 주요 보험사들은 PRA의 방침을 환영

라임 펀드판매사 '배드뱅크' 설립해 부실펀드 처리 추진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소위 '배드뱅크'를 설립해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부실 펀드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
판매사들이 모두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할지, 자본금은 얼마로 할지, 부실 펀드만 처리할지 아니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모두 이관할지 등을 두고 논의할 예정

부동산→증시 '머니무브' 가속...증시 대기자금 142조 사상최대

연합뉴스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 꺾여 부동산에서 증시로 향하는 자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향후 '동학개미운동'이 한층 힘을 얻을지 주목
지난 16일 기준 증시 주변 자금은 총 141조7천281억원으로 집계...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27조336억원(23.57%) 증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